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3 04 제171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둘째 혹은 셋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 | 진행 |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 전임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 | 진행 |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 | 진행 |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 | 진행 | : 길잡이에서()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 살기

- 1) 지난 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 진행 |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 진행 |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 진행 |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 진행 |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 진행 |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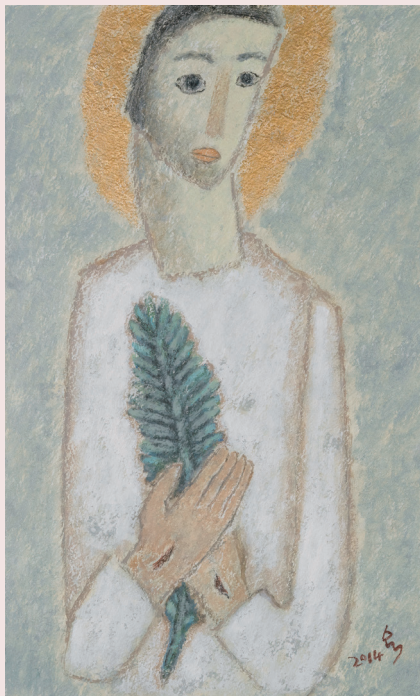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 진행 |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주님 부활 대축일(4월 9일)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요한 20,9)



승리하신 그리스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 4,14)

우리를 위해 수난하고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아침 성무일도는 그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덤에 갇히셨던 우리 임금님 군사가 엄중하게 지키었건만 장엄한 광채 속에 개설했다. 죽음의 승리자로 부활하셨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 4. 20.)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2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4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5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6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7 예수님의 얼굴을 찼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9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요한 20,1)

나에게 있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림들은 무엇입니까?

†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한 20,9)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하게 답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는 게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님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직장을 떠나야 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이들과 함께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 감사드릴 일이 분명 있습니다.

복음에서 막달레나는 이른 새벽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스승님에 대한 애정이 무작정 그녀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빈 무덤을 목격했고 부활을 증언하는 첫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계산 없이 예수님만을 생각했던 막달레나의 용기가 복음의 주제입니다. 기쁨은 언제나 잠시입니다. 돌아서면 같은 날이 늘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런 날의 연속이 삶의 거름이 되고 뿌리가 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화사한 꽃밭으로 바뀌게 합니다. 그날이 부활입니다. 그날을 희망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어 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29번 “알렐루야 노래하자”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부활 제2주일(4월 16일)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한 20,26)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 20,27-28)

믿기를 거부했던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비로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주님은 제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 뺨속까지 파고드는 절절한 고백은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을 증언합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 4. 27.)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저희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리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30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요한 20,19)

지금 나를 두렵고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요한 20,20)

최근에 나를 기쁘게 만든 일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손길을 깨닫고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토마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숨어 있었지만, 그는 나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만큼 당당한 토마스였습니

다. 그런 그가 스승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기적의 순간에 함께 있었고 눈으로 확인하며 감격했던 토마스였습니다. 그런데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는 스승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부활 역시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토마스는 예수님을 만나자 돌변합니다.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 봐야 믿겠다던 말이 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눈으로 확인해서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본다고 새삼 마음이 바뀔 토마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술한 기적을 보아왔던 토마스였습니다. 그의 변신은 예수님의 애정 때문입니다. 의심 많은 자신을 위해 두 번 씩이나 발현하신 스승님의 인내와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물증과 빈틈없는 이론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용잠 소공동체

구역분과위원장 정영옥(가브리엘라)

창원 동읍에 자리하고 있는 저희 용잠본당은 성당 지붕 위 가장 높은 곳에 '두 팔 벌려 언제나 반갑게 맞아 주시고 지켜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본당 규모는 작지만 에너지와 열의 가득한 신자들이 모여,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병원 방문과 교우환자방문 등, 구역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시기에 본당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계의 단절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생활고로 고통을 겪는 가정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본당 사회복지분과에서 생계가 막연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와 달라는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구역장님들과 함께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 방문한 내용을 전달하여,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과와 함께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보자는 의견이 모여, 신자·비신자 모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면 예외를 두지 않고 따뜻한 사랑을 나눠 보기로 했습니다. 21년 연말에 17세대, 22년 연말 29세대에 따뜻한 겨울 보내시라고, 직접한 김장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22년 설에는 29세대, 23년 설에는 21세대에 외롭지 않은 따뜻한 명절 보내시라고, 떡국과 만두를 전달하였습니다.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은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현재 저희 본당 소공동체 소식입니다. 용잠본당 소공동체는 4개 구역 7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구역모임과 반모임을 3,4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2년 4월부터 구역장들만 참석하여 본당과 구역 소식을 소통해 오다, 현재는 각 구역 간부들과 함께 매월 넷째주 주일 미사 후 소공동체 준비모임을 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신부님을 모시고 집에 계시는 환자분들께 봉성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렸던 3년여의 공백시간을 벗어나, 신부님의 지도하에 본당 사목활동 과제인 소공동체 활동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본당 소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신자들이 많이 모여 서로 정을 나누고 배려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은총 주시기를 청합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어떻게 전례를 거행하는가?」

교회는 지상에서 사제직을 받은 백성으로서 전례를 거행한다. 전례 안에서 각 신자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각자의 고유한 임무에 따라 행동한다. 세례받은 이들은 자기 자신을 영적 희생 제물로 바치고, 성품을 받은 봉사자들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섬기고자 받은 품계에 따라 전례를 거행하며, 주교와 사제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한다.

해설

교회의 전례 거행에서 ①신자들은 자신의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며 ②사제들은 ‘직무 사제직’을 수행한다.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제들만이 아니라, 사제적 백성인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전례를 거행한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전례 거행에서는 누구나 성직자든 신자든 각자 자기 임무를 수행하며 예식의 성격과 전례 규범에 따라 자기에게 딸린 모든 부분을 또 그것만을 해야한다.”

용어

사제직을 받은 백성

믿는 이들의 공동체 전체는 그 자체로 사제적인 공동체이며, 신자들은 각자의 소명에 따라 사제이고 예언자이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함으로써 세례로 받은 사제직을 수행한다. 이 같은 사제직은 세례성사를 통해 축성되고 견진성사를 통해 더욱 성숙해진다.

「전례는 어떻게 거행하는가?」

전례 거행은 표징과 상징으로 짜여 있다. 전례적 표징들의 의미는 창조 업적과 인류문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 구약의 사건들 안에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업적에서 충만하게 계시된다.

해설

교회의 전례는 풍부한 표징과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표징들에는 특별히 성경에서 빌려온 것들도 있고, 인류문화에서 유래하는 것들도 있다.

용어

표징

표징은 표지와 상징의 두 가지 뜻을 지닌다. 예를 들어 세례에서 물이라는 표징은 생명과 죽음을 가리키고 나타낸다. 물을 생명을 가져올 뿐 아니라 죽음도 가져온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업적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하느님 사랑의 큰 표징이다. 예수님 자신과 그 행위에서 우리는 전례적 표징들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다. 최후 만찬과 이어진 십자가 죽음이 대표적인 예다.

*한님성서연구소에서 출판한 [말씀으로 익히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